

진흥회 동정

1996年度 第5次 理事會 開催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9월 4일 18:30 다솜에서 재적임원 25명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심의안건으로 '9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 징수기간 연장(안)과 보고안건으로 「21세기를 향한 중전기기 산업의 발전전략」 추진 계획에 따른 중전기기 시험검사센터 설치계획(안) 및 중전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 설치계획(안)을 심의, '9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96년말로 종료되는 중전기기 산업발전기금은 징수 기간을 '99년 12월까지로 3년간 연장토록 하였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중전기기 산업의 발전전략」 추진 계획에 의거 경인지역에 1,000MVA급 단락시험설비 설치와 정보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추진 타당성 및 효율적 추진방법등을 강구키로 했다.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8월 29일 무역클럽 51층에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용심의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의 대여시기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방침(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운용심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방침(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의 업계 지원시기는 기금조성액이 약 30억원 수준에 이르는 '97년 상반기경 부터 지원키로 했으며 기금의 대여는 금리년 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융자금액은 과제당 3억원 이하로 한정키로 했다.

기술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자본재 국산화 및 수입대체품, 첨단핵심 과제, 부품·소재산업, 기술융합화가 가능한 과제, 수출유망품, 공통애로 기술개발 과제등에 우선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중전기기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케 된다.

한편, 이번에 조성되는 기술개발기금의 조성규모는 2006년까지 약 400억원 수준으로 기금 전액을 중전업계의 기술개발 지원 자금으로 투여케 됨으로써 우리 중전업계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와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重電機器 기술개발 우수업체 褒賞

중전기 산업의 기술 선진화와 수출산업화에 앞장서온 기술개발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전수식이 지난 6월 21일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朴在潤 통상산업부 장관이 수여한 이 날 포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345kV급 이상의 초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의 새로운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曉星重工業(株)의 柳鍾烈 사장이 수상한 것을 비롯, 국무총리 표창에는 寶星重電機(株)의 林都洙 사장, (株)眞光의 金光宇 사장, 日進電機工業(株)의 金伸卓 사장등 3개사가 수상하였으며, 朝興電機產業(株)의 崔伯奎 사장, 中原電

機工業(株)의 金在龍 사장, 帝龍產業(株)의 朴鍾台 사장, 亞細亞電機工業(株)의 金奉鉉 사장은 각각 통상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韓國電機工業振興會 주관의 「'96 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행사의 일환으로 그동안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실적이 우수한 중전업체의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중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 다가오는 21세기 중전기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상케 된 것이다.

「미주 重電產業 시찰단」 파견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중전기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미주지역에 대한 수출촉진 활동을 벌이기 위해 오는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12일간) 미국 워싱턴,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로스엔젤러스 등에 시찰단을 파견한다.

진흥회 李喜鍾 회장을 단장으로 LG산전(주), 중원전기공업(주), 보성중전기(주), (주)동남물산, (주)전화상사 등 국내 주요 중전기 업체 임·직원 및 중소기업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연구소 관계관등 총 25여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시찰단은 세계적 중전기 종합 생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웨스팅 하우스(WH)를 방문, 현지 생산시설 등을 직접 둘러 보면서 선진 중전업체의 첨단

경영기법 및 최신 기술동향등을 견학하게 되며, 앞으로 양국간 교류촉진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방문기간 중에는 세계적 중전기 전문 전시회인 「'96 IEEE/PES」 전시회를 참관, 첨단 전기공업 제품과 신제품 동향등을 파악하는 기회도 갖게 되는데 「'96 IEEE/PES」 전시회는 세계 5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발전·송전·배전 등 중전기 첨단제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로서 '96. 9. 15~9.20까지 로스엔젤러스에서 개최된다.

이밖에도 진흥회에서는 이번 방문기간 동안 미국 에너지성 및 상무성과 미국전기공업협회(NEMA)를 방문, 한·미 양국간 전기산업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등을 협의하고 미국 전기관련 제조업체와 수출 및 기술교류 상담회도 갖게 된다.

「東北亞 電機工業 市場動向」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중전업계의 세계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세계 유망 수출지역을 대상으로 전기공업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등을 조사, 지역별 해외시장 정보 시리즈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련업계에 정보자료로 배포해 오고 있다.

진흥회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가장 크고 앞으로도 수출이 유망시 되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기공업 시장동향 조사사업을 실시, 단행본의 「東北亞 電機工業 市場動向」 자료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동북아 전기공업 시장동향」은 서남아, 동남아 시장동향에 이어 해외 정보 시리즈 제3집으로 발간된 것으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지역 4개국에 대한 국가개황, 전력산업 현황, 전기공업 동향, 입찰기관 및 수입업체 리스트 등 이 지역 진출시 필요한 정보자료를 중

합적으로 수록하였다.

특히, 전기공업 동향은 모든 중전기기 업계가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중전기기 주요 품목인 발전기, 전동기, 전동공구,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배전제어장치, 변환장치, 전선 등을 총 망라 조사하였으며 각 품목별 수요동향 및 경쟁동향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다.

진흥회는 해외 주요국에 대한 전기공업 시장동향을 조사, 자료화함으로써 회원사 및 중전업계가 세계 전기공업 현황을 이해하고 해외시장 진출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중전기기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세계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를 더욱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적 사고”란〉

우리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개인이 경쟁력을 쌓아감으로서 처한 상황을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능동적인 사고